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거울 알레고리를 주제로 한 신체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서 인 경

거울 알레고리를 주제로 한 신체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서 인 경

인 준 서

서인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에게 거울은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나르시스적(narcisse) 도구에 불과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의 거울이면서 갖고 있는 은유적 의미에 관심을 갖게 한다.

거울에는 다양한 의미의 거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겉모습만 볼 수 있는 체경(體鏡)이 있고, 심상을 비추는 내면의 거울이 있으며, 과거를 바탕으로 한 역사의 거울이 있고,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사회적 의미의 거울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그릇됨을 통해 나를 고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거울 등이 있다. 이러한 거울의 이면적 의미는 본인에게 창작의 시점과 작품 전개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거울의 의미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본인은 거울의 개념과 거울알레고리(allegorie)의 고찰로 연구자 본인을 들여다보는 기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본 논문에서 거울의 의미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되었으며, 자기 반영적(self-Reflexivity)개념의 거울을 주제로 작품화하게 되었다.

작품의 조형적 연구에 있어서 본인이 시도하였던 기법과 공간 구도의 활용, 기법에 따른 색감과 질감을 설명하고 본인 작품에서의 거울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인의 거울을 주제로 한 신체이미지 연구는 세상을 바르게 비출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했던 자아성찰이었으며, 이과정은 명경(明鏡)을 닦는 수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품 내용에서의 거울과 창작행위에서의 본인 심상으로부터 발현되는 행위의 거울 기능에 대해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자기 반영성에 관한 본인 작품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품전개 및 표현 방법을 위한 거울로 삼고자 하며, 본인이 이 논문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

는 것은 명경지수(明鏡止水)라고 하는 맑은 거울과 흔들림이 없는 물이며, 잡념과 가식, 허욕이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비추는 거울이 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작품의 내용적 배경 : 반성성 (Reflexivity)	3
1. 거울 자아	4
2. 거울 단계	6
3. 거울의 속성	8
4. 거울 알레고리	10
III. 조형적 연구	13
1. 표현 방식	13
2. 공간	15
3. 색감과 질감	17
4. 작품 설명	20
1) 거울 연작	20
2) 기원 연작	28
3) 파편 연작	33
4) 목소리 연작	36
IV. 결 론	39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A mirror, Knife drawing (on hardboard), 15 x 21 cm, 2010	23
【작품 2】 Expression, Gumprint, 76 x 107 cm, 2008	24
【작품 3】 Between A & B 6 , Gumprint, 76 x 107 cm, 2009	25
【작품 4】 Between A & B 3 , Gumprint, 76 x 107 cm, 2009	26
【작품 5】 Mirror stage no.2, Digital print, 2009	27
【작품 6】 The blessing no.3-1,Knife drawing (on hardboard) , 10 x 10 cm, 2010	29
【작품 7】 The blessing no. 1, Knife drawing (on hardboard) 10 x 10 cm, 2010	29
【작품 8】 The blessing no.2, Knife drawing (on hardboard) , 10 x 10 cm, 2010	30
【작품 9】 The blessing no.6, Knife drawing (on hardboard) , 15 x 21 cm, 2010	30
【작품 10】 The blessing no.5 , Knife drawing (on hardboard) , 10 x 10 cm, 2010	31
【작품 11】 A piece 1, Knife drawing (on hardboard) , 10 x 10 cm, 2009	33
【작품 12】 A piece 2, Knife drawing (on hardboard) , 10 x 10 cm, 2009	33
【작품 13】 A moment, Knife drawing (on hardboard) , 76 x 107 cm, 2009	34
【작품 14】 Waiting, Knife drawing (on hardboard) , 76 x 107 cm, 2009	35
【작품 15】 Blue Voice, Knife drawing (on hardboard) 76 x 107 cm, 2009	37
【작품 16】 The Voice, Knife drawing (on hardboard) , 76 x 107 cm, 2009	35

I. 서론

거울의 용도는 오늘날 사용하는 용도와는 달리 청동기 시대에는 지도자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던 도구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거울의 역사는 인간의 문명과 함께 발달하면서 지금과 같이 변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생활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거울은 인간에게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이중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나르시스처럼 자신의 모습에 탐닉하여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쓰이거나 대상을 변형시키고 존재를 해체시키는 철학적인 역할이 있는가 하면, 자기 성찰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거울의 역할은 긍정적인 거울의 역할이며 자기성찰의 도구로서 자기수양의 계기로 삼는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거울의 역할은 본인의 내면적 고찰뿐만 아니라 본인의 작품 전개 방식이나 기법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작품의 객관적 식견을 키우기 위한 연구자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 논문을 통해 대학원 수학과정에서 연구되어 개인전과 그룹전 등에 출품하였던 작품을 논리적으로 정립함과 동시에 작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에만 치중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내면의 거울보기는 자칫 삶의 중심이 없이 방황하는 혼돈된 사회에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고찰을 통해 자아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나'의 존재에 대한 관심과 내면 성찰에 더욱 주목하고, 연구자의 예술창작에 있어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기

점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사회적인 인간의 소통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타인을 통한 거울 보기와 자아성찰을 주제로 한 본인 작품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이 논문의 전개 방법에 있어서 II장에서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의해 수반되는 반성성(Reflexivity)을 바탕으로 쿨리(C.H. Cooley)의 거울자아와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거울 단계 그리고 이상의 시 '거울'로 거울의 속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로부터 거울을 주제로 한 본인의 작품 동기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본인의 거울을 주제로 한 작품 이미지의 기법에 따른 표현 방식, 공간, 색감과 질감 그리고 작품 설명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거울의 이론적 배경과 창작행위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울의 의미와 작업과정을 통해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작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작품의 내용적 배경 : 반성성 (Reflexivity)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의(Communication) 특징은 해소할 수 없는 반성성(reflexivity)에 있다. 인간의 발화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 반사적으로 소통 주체간의 상징적 협약을 확인 시킨다¹⁾

인간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소통주체간의 자기 반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성을 지닌 사물 거울이나 물 표면과 같은 자연의 거울, 그밖에도 거울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보자면 문화나 예술 속에서의 반성적 기제를 찾아 볼 수 있다.

거울이나 거울과 같은 재현의 기능을 이행하는 거울 속에는 실체를 비추는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의 사전적 의미 속에는 빛의 반사와 굴절, 투영에 의하여 거울과 스크린 위에 투영된 대상계 즉 영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마음 속에 생각되는 직관적 형상, 즉 심상을 말하기도 한다. 심상이라는 것은 상상적 의식이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감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거울 속에 비춰진 이미지는 실체가 아닌 심상의 감각적이고 추상적인 형상일 수 있다. 심상의 감각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 기준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감각의 강도는 다를 수 있고 추상의 개념 또한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는 아닌 것이다. 결국 거울에 비춰진 이미지는 실재와는 다른 것이며, 거울이미지는 되돌려 쏘는 반사(反射)적 기능으로, 이것은 실재와 허구의 양면적 의미를 내포한다.

거울의 반사성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속에서 이미지로 확인

1) 슬라보예 지젝 지음, How to read 라캉, 웅진 지식 하우스 p24

하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듬는 반성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에서는 쿨리(C.H. Cooley)의 거울 개념과 라캉의 거울 이론을 고찰하고, 일반적인 거울의 속성을 이상의 ‘거울’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거울의 반성성을 개념화한 사회적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거울 자아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과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자아의 기원이 사회적 반영이라는 개념을 설득력 있는 은유로 나타내기 위해 미국의 사회학자 쿨리(C.H. Cooley, 1864~1929)는 거울자아(looking-glass self)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개념도 다른 사람들의 인식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²⁾

쿨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의식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으며, 거울자아는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실제의 자신이라고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쿨리의 이론은 타인의 기대와 문화적 기준에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사회화과정에서

2)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 소외, 푸른 사상 2005, p 65

인간의 자아형성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비추는가에 따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나 교사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아이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이는 자신이 그들에게 비춰진 자아의 모습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아이를 우등생으로 대하면 아이는 자신이 비춰진 이미지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쿨리(C.H. Cooley)는 이러한 자아의식을 거울 자아(looking-glass self)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설명했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쿨리의 거울자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하는 자아는 올바른 자아확립을 위한 사회화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아의 중심이 타인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은 자칫 주체의 방향성도 없이 부유하는 자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술 또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예술 작품은 자율성을 띄면서도 사회적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보여지는 주체인 예술작품이 보는 이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예술가의 취향과 광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회성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예술은 문화의 한 형태로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작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술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세상을 읽는 해석의 방향과 조형적 접근은 작품이라는 거울을 통해 관객에게 비춰진다. 이미지는 세상외부로부터 작가 내부로 비춰지고 다시 작가 내부에서 작품을 통해 밖으로 비춰지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외부 세상으로 부터의 이미지의 반사와 작가 내부로 부터의 이미지의 반사는 작품 속에서 형상화 되면서 세상 밖으로 비춰지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눈은 거울과 같고, 작가 내면을 비추는 작품이라는 거울은 관객이라는 또 다른 거울에 의해 비춰진다고 생

각한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 작가내면을 비추는 거울, 세상 밖으로 비춰지는 작품이라는 거울의 사회성은 본인으로 하여금 나의 작품은 거울로서의 바른 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성은 예술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에 끼치는 반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작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작가 내면의 반성과 자율성이라는 이중성까지 아우르는 자기 성찰의 거울을 닦아야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2. 거울단계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는 자아 성찰이나 자아정체성에 관한 내면 들여다 보기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칫 우리는 주체를 잃고 방황하곤 한다. 삶에 있어서 내면의 거울 보기는 혼돈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단히 요구되며,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체의 가장 근원적인 무의식의 영역에서 주체의 붕괴를 목격한 이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이다. ³⁾

인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라캉은 ‘거울 단계’라고 하였다.

이 거울 이미지에 대한 아이의 최초의 동일화는 라캉이 조각난 육체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심리적 체험을⁴⁾ 의미한다. 라캉의 조각난 육체

3) 윤난지 지음, 현대미술풍경, 한길아트 2005, p 41

4) 조엘 도르지움, 흥준기, 강웅섭 옮김, 라캉 세미나 .에크리 독해 1, 아난케 2009 p124

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라캉의 거울단계(Mirror stage)는 생후6개월에서 18개월된 유아의 행동에 바탕을 둔 것이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조각난 것’으로 여기다가 자신의 모습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타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유아기의 모습을 라캉은 ‘거울단계’로 설명했다. 거울단계는 유아의 한시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라캉에 의하면 인간 주체의 싸움이 계속되는 경기장(Stage)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개인의 자아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최초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다.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 자아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점에 놓이게 되면 자아는 혼돈과 불안의 시기를 겪게 되곤 한다. 예술가는 창작 과정 속에서 작품창작행위자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 본인의 내적 거울보기는 라캉이 말하는 붕괴된 주체로 허구와 실체를 구분하기위한 일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의 핵심인 ‘거울단계’이론을 통해 주체가 그 형성계기에서부터 ‘소외’의 조건을 안고 있고, 불안정한 신체를 극복하고 정체성이라는 비전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주체형성의 과정이며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드라마’⁵⁾라고 했다.

인간의 주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정한 환경에 의해 붕괴된 주체는 바로 설 때까지 일련의 자기 투쟁이 계속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본인은 거울이라는 주체의 접근을 위해 거울의 형태를 직접 이미지로 인

5)윤난지 지음, 현대미술풍경, 한길아트 2005, p. 41

용하지 않고 거울이 갖는 은유적 의미로 신체 부위 ‘귀’로 접근하였다.

작업과정에서 ‘귀’ 이미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귀의 형태에서 본인의 관념속에 있는 귀의 형태를 어떻게 화면에 전할 것인가에 대한 조형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귀의 형태는 약간의 왜곡이나 시점의 변화를 주어도 미로와 같은 구조 때문에 귀의 형태를 정면 각도에서 지나친 왜곡 없이 감성 전달에 기초를 두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마치 아기가 자신의 움직임을 자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라캉의 거울단계처럼 나는 ‘귀’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묘사에 몰두 했던 것 같다. ‘귀’이미지에 시각적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얼굴에서 귀를 독립된 이미지로 분리시킴으로서 파편적인 귀 이미지와 자아를 동일시하고자 했다.

본인의 작품연구는 거울 알레고리로서의 귀 이미지로 시작되어 나약한 의지를 담은 파편화된 발 이미지로 표현되었고, 거울을 통해 나를 다듬는 과정을 거쳐 본인의 의지와 투쟁과정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라캉이 말하는 파편화된 신체의 환상으로 경험되었던 과정을 작품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거울의 속성

거울의 속성을 앞에서 서술한바 와같이 반사적인 측면과 반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사회성에 의해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반사의 측면과 반사를 통해 나의 모습을 고치려는 반성의 측면이 있으며 거울벽이 갖는 단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시 ‘거울’은 거울의 속성중에서 반사와 반성 그리고 거울 벽의 소외까지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울

이 상⁶⁾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यो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यो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6) 이상: 李箱 1910. 9. 14 서울~1937. 4. 17 도쿄[東京], 시인·소설가, 실험정신이 강한 시를 써오다가 1936년 소설 〈날개〉를 발표하면서 시에서 시도했던 자의식을 소설로 승화시켰다. 본명은 김해경(金海卿).

이상의 시 ‘거울’에서 소리가 없는 세상은 외부세계와 차단된 세상을 말하며,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아는 자신의 모습과 반대로 선 대립된 모습을 의미한다.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는 자아에 반대되는 상반된 자아의 모습으로 소통할 수 없는 한계를 표현한다.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에서는 나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주지는 못했지만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미로 왜곡된 자아를 비추는 거울을 이야기한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속의 내가 있소’ 거울속의 나와 거울 밖의 대립된 모습에서 자아는 독립되어 분리되었다. 거울은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만날 수 있게 하지만 악수를 모르는 거울 벽의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시는 소통과 단절의 모순된 거울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분열된 자아는 작업하는 과정속에서 본인이 겪게 되었던 심적 상황과 흡사한 묘사를 하고 있고, 본인의 주제인 거울의 속성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4. 거울 알레고리

이제까지 거울의 개념과 거울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춘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사물인 거울과 함께 예술의 창작 또한 거울의 의미를 지닌다.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창작을 하는 예술가 개인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 시대와 사회상을 작품을 통해 볼 수 있고 작품은 작가의 내면까지 비출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한계를 느끼면서 불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내면 보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의 대

학원 수학과정은 자아가 위태로운 시기에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본인의 작품 이미지 속에서 파편적 신체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라캉이 말하는 거울단계로 주체형성의 과정이며 창작하는 동안 본인의 일기와 같은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나의 주체는 긍정적인 자아의 모습이 아니었다. 주체의 나약함으로 붕괴된 나는 파편화된 신체이미지로 작품에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소유한 거울의 형태가 과연 '명경(明鏡)'인가? 하는 의심과 함께 이것을 반성의 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거울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반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내 밑바닥에 깔린 무의식의 내면 속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 같다. 불안한 내면 속에서 시작되는 나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스스로에게 계속되는 질문이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은 자아와의 싸움일 것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 본인은 작품 속에서 인간 주체의 싸움이 계속되는 경기장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것은 거울 앞에서의 이미지와의 싸움 같았다.

거울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자'와 거울 속에 '보여지는 자'가 있다. 이 둘 사이에 진정한 주체는 '바라보는 자'인가 '보여지는 자'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본인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얻은 답은 '바라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를 모두 볼 수 있는 자이다. 이 둘을 모두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실체에서 나는 온전히 빠져 나와야한다.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는 다를 것이며, 내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나' 일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객관화는 진정한 자아 성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성찰에 대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

고 자아의 내적 갈등과 함께 본인의 끊임없이 솟아나는 창작의 욕구는 그대로 작품에 옮겨졌다.

Ⅲ. 조형적 연구

1. 표현 방식

연구자가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석사 과정 중에 익힌 다양한 기법은 동판기법, 검 프린트, 현대의 디지털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 양식을 접하였고, 연구자는 표현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기법과 주제와 내용을 고려하여 작품화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선택한 기법은 검 프린트(Gum bichromate print), 검 프린트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digital) 작업 인 컴퓨터 드로잉(computer drawing)과 지 판화(紙版畫) 기법이다.

1) 검 프린트 기법(Gum bichromate print)

검 프린트 기법은 중 크롬산염과 고무액에 의한 감광성을 이용하여 빛의 양에 따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검 프린트의 작업과정은 먼저 판화지의 수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판화지에 젤라틴 용액으로 밀 처리(seizing)⁷⁾를 한 후 본인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고 이것을 다시 네가티브 필름(Negative film)으로 출력한다. 감광액(중크롬산 염, 수성물감, 고무액을 섞은 감광액)을 종이에 도포하여 건조시킨 후 자신의 이미지가 담긴 네가티브 필름(negative film)을 밀착시켜 햇빛이나 감광기에 넣어 노광을 한다. 노광 후 물에 담궈 수세과정을 거쳐 건조시킨다.

7) seizing 고온 또는 저온으로 말미암아 부품이 팽창 또는 수축을 하고, 이물질이 끼어 녹아 붙거나 구속되고 고착되어 그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담담하고 침착한 분위기의 반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검 프린트의 진솔함과 차분한 기법적 특성이 이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 같아 이 기법을 작품 2,3,4에 시도하였다.

2) 지 판화 기법

지 판화는 하드보드(Hardboard)위에 작품이미지를 옮기고 나이프(Knife)로 지판 표면에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을 한다. 이미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지판 표면의 요철(凹凸)을 염두에 두고 지판 표면을 Knife로 긁고, 찢고, 칼로 도려내거나 우연히 잘려 나가는 등 종이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판위에 요철의 깊이를 얻어낸다.

종이의 물성은 긁고, 찢고, 잘려나가는 우연성에 따라 판화지에 판을 찍을 때 명암과 질감이 용이하게 표현되는 장점이 있다. 의도적인 찢기의 속도와 강도, 긁는 도구의 강도에 따라 깊이의 강약을 조절하고, 그러한 차이에 의해 종이의 물성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작품 1과 6-16은 지판화를 차용한 작품으로 종이의 물성에 의해 얻어낸 표면으로부터 인간 내면의 감성 표현을 읽어 볼 수 있다. 작품 과정상 판화 표면의 요철 표현이 용이하고 판화지 표면에서 풍부한 감성표현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지판의 물성을 이용해 지판의 이미지에 의한 표정을 표현한 후 지판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을 한다.

3) 컴퓨터 그래픽방식(computer graphic)

붓을 대신한 마우스는 이 시대의 회화적 도구가 되었다. 컴퓨터 그래픽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2차원(2Dimension)과 3차원(Dimension)이 있다. 본인은 2D 방식의 접

근을 시도 하였다. 아날로그 방식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생각 되어 지는 공간해석을 디지털 방식에서 보다 수월하게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작품5는 검 프린트 방식의 한계로 인해 디지털화한 작품으로 검 프린트 작업에서 얻기 힘든 스케일과 밀도감을 표현하고자 시도된 작업방식이다. 검 프린트 작업을 바탕으로 거울을 사이에 두고 거울 안의 존재와 거울 밖의 존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작업으로 표현하였으며, 진실된 공간에서 서로 마주하는 내면을 색으로 밀도감 있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2. 공간

화면구도에서 공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미술사전에서 구도는 “그림을 그릴 때 화면에 담을 것의 배치를 잡는 것을 말한다. 실제의 회화작업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회화적 질서를 의미하며, 포지션(position), 비례(proportion), 원근(perspective), 균형(balance), 리듬(rhythm), 하모니(harmony), 또는 통일과 변화, 생략과 강조와 같은 시각적인 조형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 작품 2,3,4,5,6,13,16 의 position은 주로 중앙에 위치하며, 정적인 수직구도나 수평구도이며, 평면적인 정면 각도에서 묘사되었다. 공간 여백 없이 화면 전체에 주제로 가득찬 이미지전개는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출발점이 거울 벽에 의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심상의 문제로 화면을 가득 메우는 구도로 접근되었다.

작품 5의 경우 작품 접근방법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Position 이나 Proportion의 변화를 주면서 의도적인 공간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우측 공간을 비우면서 '거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적 여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작품 5)은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동시에 모두 보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제 3의 시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공간 속에서 객관적인 시점의 묘사를 하고자 하였다.

작품7에서 작품의 공간은 구도 배치 상 약간 초현실적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파편화된 발이 잘려진 발이 아니라 공간 속으로 사라지는 듯 한 표현을 하고자 했다. 공간 구도 상 발 바닥의 정면, 화면 구성상 정 중앙의 대칭적인 수평 구도이다.

작품 6,7,8,9,10의 기도하는 발의 형태를 측면에서 묘사되거나 이미지의 경계와 구별되기 위한 단순한 배경처리로 화면구성을 유도하였다.

작품 11,12의 서술적인 배경은 인체를 비좁은 구석으로 몰아 인체 이미지가 표현하고자하는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묘사하고 있다. 소외의 이미지를 공간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5는 원편 아래의 빈 공간을 남기고, 화면 오른쪽의 역 삼각 구도로 편중된 이미지이다. 부분적인 배경처리와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면적인 단순처리를 하게 되었다. 배경과 이미지의 구분이 뚜렷하도록 색의 면 처리와 선의 두께와 깊이에 차이를 두어 귀를 묘사하게 되었다.

작품16은 거의 화면 중앙에 위치한다. 작품 이미지와 배경의 구별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배경은 단순화 되었다.

작품16을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 작품은 공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 답답한 느낌을 공간에서 주고 자 함이었다. 공간적 구성에 있어서 거울의 단절이

주는 심상의 느낌을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목소리 연작은 공간적으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여유를 주고, 편안한 심상을 전하고자 배경을 비우게 되었다.

그러나 화면구성상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심상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화면 공간을 좀 더 비우고 하단을 띄웠다면 좀 더 독립된 자아상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설명한 본인의 평면적이고 서술적인 공간 구도 방식은 공간속에서 이미지 전달과 작가의 무의식적 심성을 전하려는 의도에 의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묘사에만 주목하였고, 본인 스스로 공간을 들여다보고 고찰하면서 본인의 작품 속에서 공간에 대한 시점 변화와 생략과 강조를 통해 관객을 시각적으로 유도하는 힘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품에서 지나친 시각적 공격이나 자극적인 시선을 유도함이 아니라 관객의 시선에서 일견에 스쳐지나가는 이미지가 되기보다는 작품 앞에서 다시 한번 작가의 메시지를 느끼고 사색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조형적인 공간의 구도와 활용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색감과 질감.

1) 검 프린트

색과 질감은 기법에 따르게 된다. 기법의 재료가 갖는 성격에서 색감과 질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색감과 질감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성질과 작업과정의 조건에 대해 서술되어야 할 것 같다. 검 프린트 (Gum print)기

법(작품 2.3.4)은 색을 분판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색을 한 번에 한색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검 프린트는 1도 1도 색을 올릴 때 마다 물감그대로의 고유한 색을 올리면서 색이 판화지에 중첩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은은한 색감과 질감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작업하였다. 이 방법은 수성물감의 은은하고 차분한 맛을 볼 수 있으며, 검 프린트의 고전적인 방법은 색을 옅은 노랑에서 시작하여, 연두색, 주황색, 초록색, 빨강, 파랑,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색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작품 거울 연작의 반성적이고 솔직한 분위기는 검 프린트의 담백한 색감을 살리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검 프린트를 시도하게 되었다.

검프린트의 색감과 질감은 네가티브 필름(negative film)의 명도 차에 의해 색의 연하고 질음이 표현되며, 질감 또한 필름상의 평면적인 텍스처 이미지(texture image)가 감광을 통해 질감을 표현하게 된다. 판화지의 표면적인 질감위에 필름상의 명도 차에 의한 이미지와 노광 시간, 고무액의 농도 등이 질감 묘사의 조건을 좌우하게 된다.

빛과 필름의 상태에 따라 노출 시간과 감광액의 비율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모두 날릴 수도 있고, 빛을 너무 쏘이면 탁하고 어두운 색감만을 남기기 때문에 정확한 색감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data)를 얻기 위한 연습이 필수적이다.

2) 지판

지판화의 잉크는 대부분 유성잉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판화 표면을 코팅제로 마감처리를 하고도 미세한 지판화 틈새로 수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성잉크를 쓰게 된다. 오목 판화의 일반적인 잉킹(Inking)방

법대로 지판틈새로 잉크(Ink)를 스퀴즈(squeeze)로 밀어 넣고 면 망사로 표면을 닦아낸다. 색감은 일반적인 유성잉크의 광택과 색감을 표현하게 된다. 이 작업은 색이 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회화적인 색감을 원했기 때문에 잉킹(inking)과 부분 롤링(rolling)에 주의한다. 지판의 질감은 지판의 깊이와 잉크의 농도, 프레스의 강도, 온도, 판화지가 함유한 수분함량, 펄트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질감이 강하게 혹은 약하게 표현 될 수 있다 . 지판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판의 질감을 표현하기 좋고, 다른 판종에 비해 쉽게 판화지 표면층에 판의 깊이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작품 기원, 파편, 목소리연작을 지 판화위에 나이프 드로잉(Knife drawing)으로 질감과 색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습도에 민감한 종이는 판의 보관이나, 판의 크기에 따라 코팅을 해도 판이 뒤틀리거나 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예리한 칼날에 의한 커팅의 틈새로 수분이나 잉크를 닦아내는 기타 용제에 의해 침투가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변질된 색이 찍힐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용제의 침투는 판을 부분적으로 뒤틀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색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코팅을 여러 번 할 경우 판의 표면적 질감이 둔하게 덮어져 원하는 색감과 마티에르의 표현을 동시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위해서는 코팅제의 농도를 약하게 하여 여러 번 처리하는 것이 좋다.

3) 컴퓨터 그래픽 (Computer Graphic)

Computer Graphic은 비교적 색감이나 질감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연구자의 경우 색감에 있어서 출력지가 판화지일 경우 잉크의 흡수량과 발색의 정도 때문에 색감의 오차가 있었고, 모니터상의 색

감과 출력후의 색감이 동일하지 않고, 모니터 마다 색감이 다르므로 여러 번의 출력 테스트를 통해 색을 보정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의 제한된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품의 실제 크기를 한 눈에 볼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질감에 있어서 자연적인 물성이나 재질의 표현보다는 인위적이고 평면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재질이나 질감의 순수함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적인 컴퓨터 드로잉(computer drawing) 보다는 아날로그(analogue)적인 기법의 접목이나 소재의 자연적인 물성의 이미지를 선행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작업하는 것이 색감과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작품 설명

1) 거울 연작 (A mirror series)

‘듣는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귀’의 형태는 소통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본인에게 작품의 출발점이 되었다. 작품1에서 귀의 형태를 보면 외이(外耳)를 볼 수 있고, 형태의 구조와 연결을 보면 측면 두상으로 부터 귀는 외부로 돌출된 형태이며 타원형의 외이가 소리를 안쪽으로 모으기 위해 밖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본인에게는 마치 미로(迷路)와 같이 느껴진다. 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가 갖는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의 의미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본인의 듣기는 미로와 같은 귀의 형태와 함께 미궁으로 빠져 버리곤 한다. 반사성과 반성성을 수반하는 의사소통은 본인의 경우 의사소통을 하면 할수록 모호해지는 의미의 다양성 때문에 거울 벽과

같은 소통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반사성, 반성성, 유리벽의 소외를 내포하고 있는 사물 거울은 본인에게 ‘나에게 귀는 거울이다’ 라는 거울 알레고리를 주제로 거울 시리즈(Mirror Series)를 연작하게 되었다.

작품 1에서는 ‘듣는다’ 는 행위를 하는 ‘귀’ 이미지를 형태의 왜곡이나 변형이 없이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작품 2에서는 소리나 진동을 느끼는 수동적인 귀의 이미지에 표정을 담고자 하였다. 귀 이미지 속에 웅크린 아기가 있다. 아기의 모습은 완전한 인체의 형태가 아니라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외부세상과 상관없이 자신의 세상 속에 갇혀 있다. 귀와 아기는 한 몸으로 이어져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귀가 아이와 한 몸이 되면서 아이의 인체포즈를 통해 귀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

작품 3은 귀 속에 한 사람이 귀 안쪽을 응시하며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귀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의 포즈를 배경으로 전경에 투명한 방울이 허공에 떠 있어서 초현실적인 가상 공간을 이미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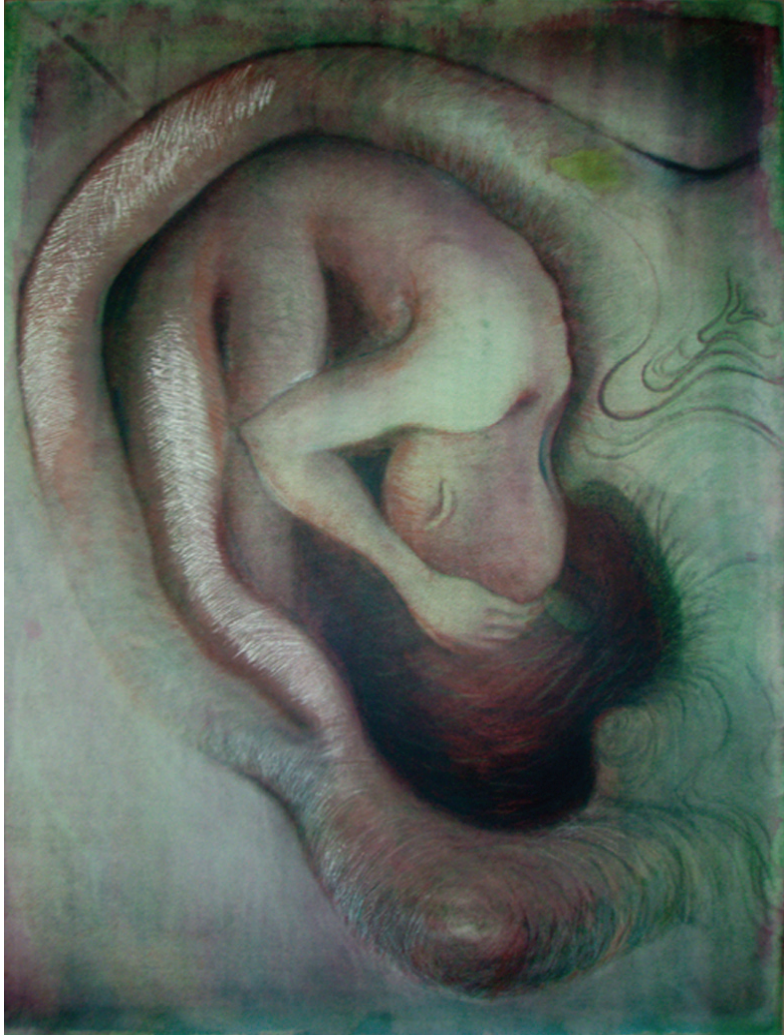
작품 4에서 어둠속에서 귀는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한 귀를 형상화하기 위해 어둠을 배경으로 귀와 귀속에 엮드린 사람을 배경으로 허공 속에 불규칙한 빛의 잔영이 떠 있다.

작품 5는 거울 안과 거울 밖의 사람이 대칭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립된 위치에서 같은 모습이지만 좌우가 바뀐 모습이다. 이 둘을 모두 보고 있는 제 3의 시선은 결국 본인의 내면과 외적인 모습을 모두 보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고자하는 본인의 의지이다. 이 작품에서는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의 파놉티콘(panopticon)을 뜻하기도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panopticon은 ‘모두’를 뜻하는 ‘pan’ 과 ‘본다’는 뜻

의 ‘opticon’을 합성한 것이며, 감시자 없이도 스스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통제하고 정화한다는 의미로 자기 성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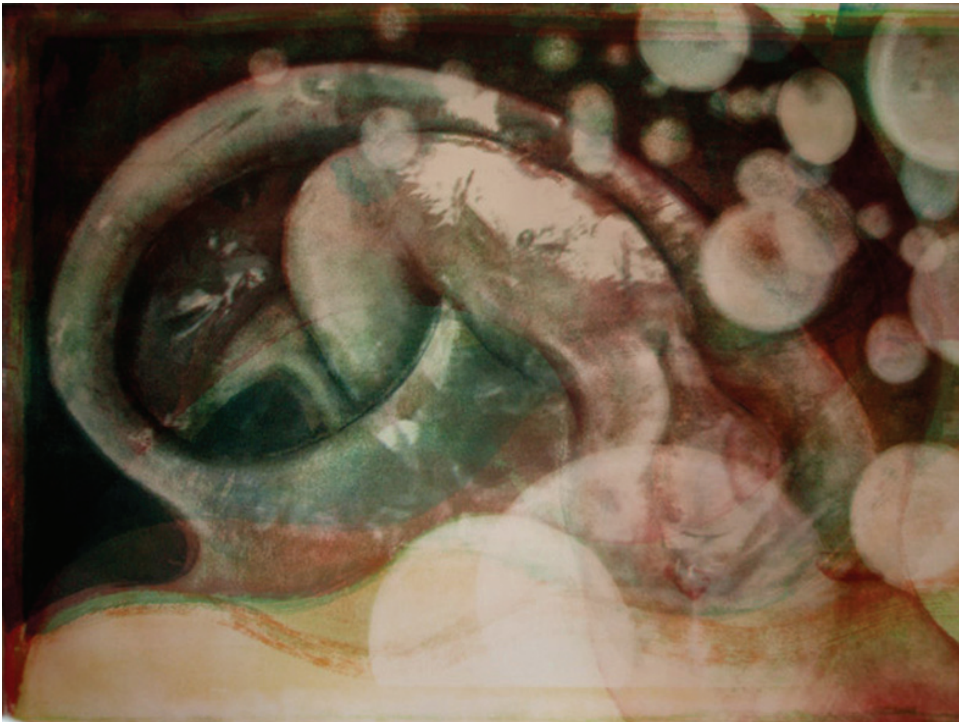
【작품 1】 A mirror, Knife drawing (on hardboard), 15 x 21 cm, 2010



【작품 2】 Expression, Gumprint, 76 x 107 cm, 2008



【작품 3】 Between A & B 6, Gumprint, 76 x 107 cm, 2008



【작품 4】 Between A & B 3, Gumprint, 76 x 107 cm, 2009



【작품 5】 Mirror stage no.2, Digital print, 2009

2) 기원 연작 (The blessing series)

작품 ‘The blessing’ 시리즈에서 이미지는 부분적인 발의 형태들이다. 발의 기능은 온전히 인간이 대지 위에 설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발의 기능에서 홀로 서기에 관한 은유적 의미를 작품에 담고자 발의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다. 온전히 설수 없고, 발 디딜 수 없음은 매우 슬픈 일이다.

‘The blessing’ (작품 6,7,8,9,10)시리즈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 연약한 인간, 신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기도하는 포즈에서 발의 형태에만 주목하여 묘사한 것이다. 발 바닥을 정면으로 혹은 측면으로 표현하고, 이미지 재현에 집착하지 않고 대략적인 표현과 압축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주로 표현된 작품 시리즈이다. 본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작품 6】 The blessing no.3-1, Knife drawing (on hardboard),10 x 10 cm, 2010



【작품 7】 The blessing no. 1, Knife drawing (on hardboard),10 x 10 cm, 2010



【작품 8】 The blessing no.2, Knife drawing (on hardboard), 10 x 10 cm, 2010



【작품 9】 The blessing no.6, Knife drawing (on hardboard), 15 x 23 cm, 2010



【작품 10】 The blessing no.5 , Knife drawing (on hardboard),10 x10 cm, 2010

3) 파편 연작 (A piece series)

작품 11과 작품 12는 심리적 갈등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구석을 향해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인체 포즈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바닥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조각난 선이 분열적이며 해체적인 선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 폐쇄적이고 소통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 인체를 구석으로 몰아 갈등적 심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몸으로 심상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작품 13과 작품 14는 전체적인 인체를 표현하고 있다. 모래 시계위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은 시간과 반성에 관한 메시지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길이를 이미지에 함축하고자 모래시계를 묘사하고, 멈춰진 시간과 반성의 이미지를 함께 다루었다.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른 낯선 나를 만나게 되었다. 낯선 나와와의 만남은 주체에 관한 의문과 답을 구하기 위한 끝없는 거울 속의 반사와 같다.

작품 14에서는 화면을 등지고 앉아 갈등하는 포즈로 인체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 14 또한 작품 13에서 모래시계위에 앉아 있는 인체를 인체 후면에 시점을 두고 묘사했으며, 모래 시계위에 앉아 있으나 모래시계는 거의 생략하여 표현 하였다.



【작품 11】 A piece 1, Knife drawing (on hardboard), 10x 10 cm, 2009



【작품 12】 A piece 2, Knife drawing (on hardboard), 10 x 10 cm, 2009



【작품 13】 A moment, Knife drawing (on hardboard), 76x 107 cm, 2009



【작품 14】 Waiting, Knife drawing (on hardboard), 76 x 107 cm, 2009

4) 목소리 연작 (Voic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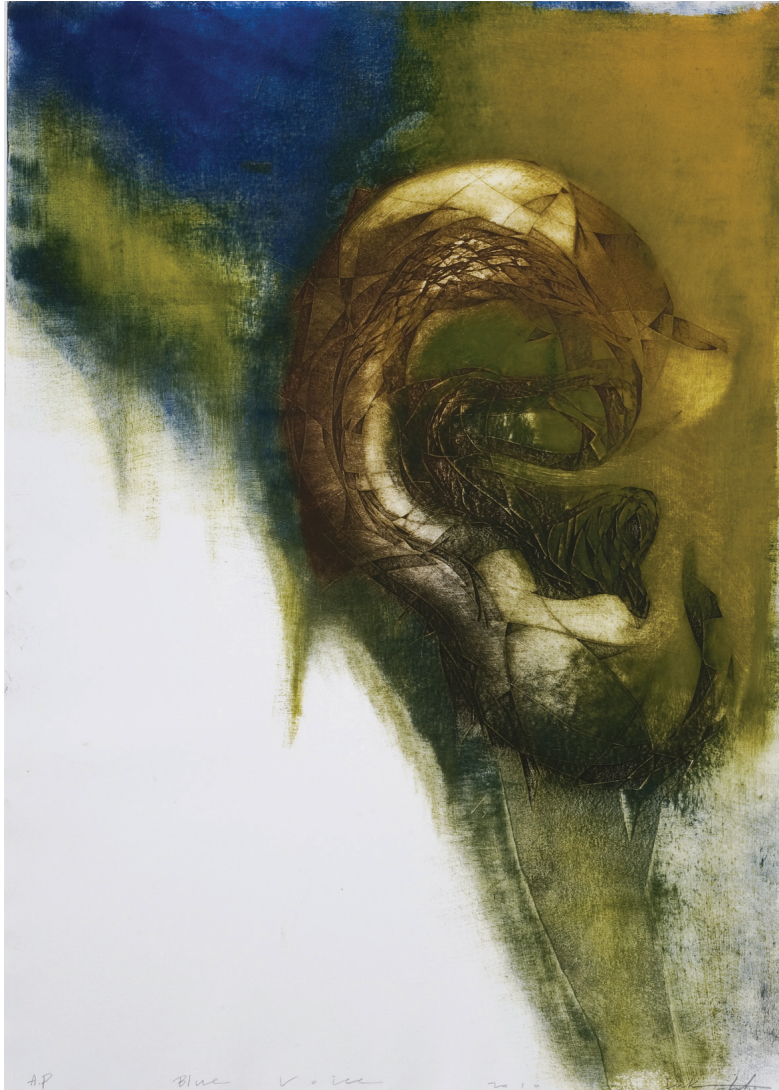
작품 15에서 나는 목소리의 강도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것은 일종의 감각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았다. 소리, 진동, 파장, 이러한 것들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때로는 피부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감각을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표정도 없는 부분적인 신체의 귀 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내면의 거울 속에서 본인은 자신에게 스스로 지적하고 반성하며 다듬는 과정을 작품 Blue voice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6은 귀를 열고자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귀를 왜곡하고 인체의 비정형적인 형태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번 작품 16에서는 독립적이고 확장된 귀와 인체를 합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앞의 작품 11,12,13,14에서 움크리고 있던 인체 포즈와는 달리 작품 16의 인체는 포즈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안고 있던 거울 벽에 관한 고민을 극복하고 싶은 바람으로 관조적이고, 초연함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작품 15】 Blue Voice, Knife drawing (on hardboard) , 76 x 107 cm, 2009



【작품 16】 The Voice, Knife drawing (on hardboard), 76 x 107 cm, 2009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이슈이자 본인의 문제인 소통부재를 출발점으로 하여 거울과 거울 알레고리에 중점을 둔 본인의 작품을 설명한 것이다. 거울은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본인에게 다양한 측면의 의미를 제시하는 사물이다.

첫째 쿨리의 거울 자아와 같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확인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했고, 둘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인 스스로 혼돈스럽고 불안한 내면적 자아를 들여다보면서 갈등하게 되면서 라캉의 거울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셋째 이상의 ‘거울’ 시에서 거울의 속성이 갖는 소통과 단절의 양면적인 개념을 고찰 하였다.

이러한 거울 개념은 작품의 조형적인 전개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본인의 내면 보기를 위해 ‘귀’ 이미지를 기점으로 작품화 되었다. 나의 귀는 자신을 표현할 줄 모르는 소리의 수용체로 시작되었으나 자신의 모습을 귀속의 아기를 통해 표현하였고, 귀라는 거울의 기능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듣기’를 통한 내면의 거울 ‘보기’를 하게 되었다. 거울 개념의 ‘듣기’를 통한 ‘보기’는 객관적인 나를 보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는 자’와 거울 속에 ‘보여지는 자’ 간의 대립은 자아를 불안하게 하면서 자아는 작품 속에서 부분적인 신체이미지인 귀와 발의 형태로 파편화되었다. 붕괴된 내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은 파편적인 신체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지 판화 작업과정은 종이의 물성을 이용하여 지판 표

면을 긁고, 찢고, 종이를 뜯어내다가 우연히 잘리거나 도려내는 창작과정을 통해 본인의 심상을 행위로 풀어가는 작업이었다. 기원, 파편, 목소리 연작을 지판에 옮겨 작업하는 행위 속에서 종이를 다루는 나의 손동작과 함께 심상의 이미지를 지판위에 전하게 되었던 것 같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손동작의 발현은 지판에 옮겨지고 이것은 다시 판화지에 옮겨지면서 마치 거울과 같이 서로 반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검 프린트 작업은 감광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필름과 빛의 투사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작업이다. 판화지에 감광물질을 도포하고 필름을 얹어 빛을 쬐이고 물속에서 이미지가 드러날 때까지 수세과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반복되는 행위는 본인에게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은 수행과정과도 같이 느껴졌다. 이미지를 얻기 위한 반복적인 작업과정 속에서 본인을 비춰준 작품이라는 거울은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왜곡된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했고, 자학적이고 나약한 내면의 모습과 반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결국 본인 작품의 형상은 자기 반영적인 형상이었다. 본인의 거울을 주제로 한 신체이미지 연구는 세상을 바르게 비출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했던 자기 반영을 통한 자아성찰이었고, 이과정은 명경(明鏡)을 닦는 수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품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명경지수(明鏡止水)라고 하는 맑은 거울과 흔들림이 없는 물이며, 이것은 즉 잡념과 가식, 허욕이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의 거울을 갖고자 함이다. 자기애에 사로잡힌 채 거울을 보면 나의 단점이나 허점은 보이지 않고 나의 미화된 모습만이 나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다. 자기애 속에 빠져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기 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식견을 기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객과 창작의 주체간의 소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세상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작품이 아니라 명경지수가 되어 세상을 바로 비출 수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 연구자의 목표이고 바램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을 닦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 석, 무의식에로의 초대: 프로이트 & 라캉, 김영사, 2010
- 로리슈나이더 애덤스 지음, 박은영 옮김, 미술사 방법론, 조형교육 2005
- 린다 노클린 지음, 정연심 옮김,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2001
- 박영욱 지음,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향연 2008
- 슬라보예 지젝 지음, 박정수 옮김, How to read 라캉, 웅진 지식하우스, 2008
-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 소외, 푸른 사상
- 윤난지 지음, 현대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 임양환 편, 특수사진 인화기법: 검프린트에서 디지털 네거티브까지,
포토 스페이스, 2005
- 조엘 도르 지음, 홍준기, 강응섭 옮김, 라캉 세미나 . 에크리 독해, 아난케 2009

ABSTRACT

A Study on Body Image with the Mirror as a Theme

-About my works

Seo, Inkyung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human, the mirror is a narcissist tool pursuing the beauty in superficial look, but as time goes by, the mirror has the interest in metaphoric implication in the other side of the mirror. Mirror has another mirror with diverse implications.

There is a body mirror to take a look into the appearance only while there is a mirror to reflect inner side and mind. Also, there is a mirror of history on the basis of the past and mirror with social implication to discover myself through others as well as the mirror to correct myself through the mistake of others. The implication of such a mirror has presented the time of creative work for me as well as the direction of work undertaking and has more attention for the mirror's implication.

I have contemplated the mirror concept and mirror allegorie to have the time of opportunity and contemplate myself for look into myself. With this as a turning point, the meaning of mirror in this thesis has become the tool for self-contemplation and make the work as the self-reflexivity concept of mirror as the theme.

For the formative research of the work, the techniques I attempted, facilitation of spatial scheme, color texture and tissue texture following the technique are explained and described on implication and contents of the mirror.

The body image study with the theme of my mirror is considered as the process of training for clear up for the self-contemplation to go through to be an artist to light on the world right way. And, re-interpret on mirror function of act manifested from my mind in the creative act and mirror in work contents.

On the basis of my work study on self-reflection, I am trying to take it as my work undertaking and expression method and what I am trying to strive through this thesis is the clear mirror and undeterred water as well as the mirror to light up the world with very clear and clean mind without distraction, fallacy or false sense of recognition.